□ 교정 전

1. 사설 요약

본 사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 다음 세대를 위해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특히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의 소극적인 반영의 결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의 격차가 심각해졌음을 언급하며, 학교별 교육 환경, 정보 교사의 배치 여부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는 역량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의 수업 시간은 전체 시수의 0.55%에 불과한 소극적인 반영, 코로나19 상황 속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정보 교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수업 격차가 심각한 모습, 교내 컴퓨팅 기기, 와이파이 사용 제한 및 실습 교육 제한, 지역별 정보 교사의 비율,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공교육이 제공

이를 위해 초중고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정보교육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미래에 자기주도적으로 적응힐 수 있으며,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속 다음 세대를 위해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특히, 컴퓨팅사고력 기반의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정 전

1. 사설 요약

본 사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 다음 세대를 위해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특히, 컴퓨팅사고력 기반의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수업의 민낯과 학교별 교육 환경, 정보 교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격차가 심각한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수업 선택권이 있는 배움이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첫째, 초중고에 이어 대학까지 전 교육과정에 이어지는 포괄·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둘째, 전 학년에 걸쳐 연속적인 정보교육이 준비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다음 세대는 미래 환경에 자기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협업과 역량을 지닌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2. 사설에 대한 논평